

글을 읽다 모르는 내용이 나오면  
자료를 찾아 모르는 것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시진이가 자료를 참고하며 한 편의 글을 읽는 과정을 살펴보고 물음에 답해 보자.

글을 읽으면서  
궁금하거나 인상적인 부분을  
메모하고 관련 자료를  
찾아보자.



'팝 아트'의 정확한 뜻을  
무엇일까?



팝 아트(pop art) 1960년대 초기에 미국에서 발달하여 미국 미술계를 지배했던 구상 회화의 한 경향이다. '팝(pop)'이라는 명칭은 '파퐁러(popular)'에서 유래하였으며, 대중적 이미지에서 소재를 취했던 미술의 경향을 일컫는다. 팝 아트가 .....

- 월간미술 엮음, 《세계 미술 용어 사전》

팝 아트가  
외국 예술 작품을 말하는 줄로만  
알았는데, 백과사전을 찾아보니  
대중적 이미지를 소재로 한  
미술의 경향이었구나.

## 만화와 포장지도 예술이 되지 .. 전성수

어디서 많이 보던 것 같은데?

누구에게나 친숙한 소재를 활용한 작품을 팝 아트라고 해요. 팝 아트의 물결은 1960년대 초반부터 미국 미술계에 강하게 몰아칩니다. 그 전에는 추상 표현주의라는 미술 사조가 유행했는데 작품을 보고 이해하기가 아주 어려웠다고 해요. 추상 표현주의 작품에 고개를 갸웃거리던 사람들은 너무나 친숙한 소재를 활용한 팝 아트 작품을 보고 열광했지요.

상품의 포장지로 작품을 만들었던 앤디 워홀은 팝 아트의 교황으로 불렸어요. 워홀은 작품의 소재를 슈퍼마켓이나 대중 잡지에서 찾아 판화로 찍은 다음 반복해서 나열했습니다. 워홀이 사용했던 이미지 가운데에는 당시 가장 유명한 여배우였던 메릴린 먼로의 사진도 있습니다.



▲ 〈청록색 메릴린〉, 1962(미국 국립미술관)

진짜 공룡처럼 커진 돌리를 상상해 봐!

어디서나 쉽게 볼 수 있는 이미지가 작품으로 탈바꿈한 것을 보고 사람들은 신선한 충격을 받았어요. 늘 보던 것이지만 반복하거나 확대하니 새롭게 보였지요.

그동안 사람들은 미술이 심오한 활동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팝 아트 작가들의 생각은 달랐지요.

특히 워홀은 미술을 오락적인 '상품'과 다름없다고 말했어요. 그는 미술이 미술관에서 나와 일상생활 속으로 뛰어들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팝 아트의 또 다른 중요한 소재 가운데 하나가 만화예요. 여러분은 만화를 좋아하나요? 왜 좋아하나요? 아마도 이해하기 쉽고, 재미있고, 빠르게 읽을 수 있는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요. 이유가 어찌 되었든 우리는 만화를 친숙하게 여기고 좋아합니다. 이런 만화를 아주 크게 그려서 작품을 만들면 어떤 느낌이 들까요?

또 다른 팝 아트 작가인 리히텐슈타인은 만화의 한 장면을 광고 게시판 크기로 크게 확대하여 표현했어요. 마냥 어렵게만 여기는 미술에 대한 생각에 도전한 것이지요. 너무나 익숙한 만화지만, 크게 확대해서 보면 오히려 완전히 새롭게 보입니다. 마치 아기 공룡 둘리를 크게 그려서 작품으로 만든 것과 마찬가지로요. 그러면 둘리가 갑자기 낯설어 보이지 않겠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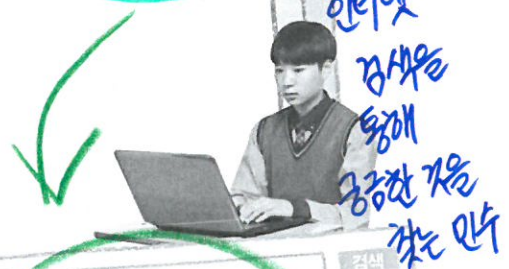
▲ <오 올라잇>, 1964(로이 리히텐슈타인 재단)

책에 나온 작품에서도 인화물을 확대했을 때 생기는 점을 세밀하게 표현하고 있었구나.

★ 팝 아트의 소재  
- 대중적인 배우  
- 만화  
→ 모두 친숙한 소재

리히텐슈타인' 작품의 특징은 무엇일까?

여기  
인터넷  
검색을  
통해  
궁금한 것을  
찾는 만화



리히텐슈타인 팝 아트 작품 ▼

인물 정보

로이 리히텐슈타인(Roy Lichtenstein) 화가, 조각가  
미국 뉴욕 출신의 팝 아트 미술가. 미국의 대중적인 만화를 작품 소재로 선택하였다. 밝은 색채와 단순화된 형태, 뚜렷한 윤곽선, 인쇄물을 확대했을 때 생기는 점의 세밀한 표현을 특징으로 한다. 더 보기

작품 정보 '로이 리히텐슈타인'의 작품입니다.



<행복한 눈물>, 1964 <음 어찌면>, 1965 <차 안에서>, 1963  
(로이 리히텐슈타인 재단)

- <두피디아>



예시)

강한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관련 책을  
찾는 인숙

'올덴버그'의 작품이 실제로  
얼마나 큰지 알아볼까?

**올덴버그(Claes Oldenburg)의 작품 세계**  
유럽 출신의 미국 팝 아트 작가인 올덴버그는 생활 속의 물건을 크게 확대하여 거리에 설치함으로써 예술 작품으로 새롭게 탄생하도록 했습니다. 독특한 표현법은 .....



〈셔틀콕〉, 1994



〈떨어뜨린 아이스크림콘〉, 2001

김정숙, 《스토리텔링 초등 미술 교과서》

관련 책을 보니 올덴버그는  
일상용품을 건물 크기만큼  
거대하게 만들었네.

★ 팝 아트의 특징

- 익숙한 소재 사용.
- 쉽고 친숙한 느낌.
- 익숙한 대상을 새롭게 보이도록 함.

우리나라 팝 아트의  
역사와 작가도  
찾아봐야겠어.



만화뿐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사용하는 수저나 운동화가 백 배 정도로 커진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더는 익숙한 물건처럼 보이지 않을 거예요. 팝 아트 작가 가운데 올덴버그라는 미술가는 우리가 즐겨 먹는 햄버거나 아이스크림을 크게 조각 작품으로 만들어서 관객들이 주변의 일상용품을 새롭게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미술도 파는 상품처럼 만들 수 있다고?

이처럼 팝 아트 작가들이 작품에 활용한 콜라, 햄버거, 만화, 엘비스 프레슬리, 메릴린 먼로 등과 같은 친숙한 이미지들은 대량 소비 시대의 산물이에요. '대량 소비'는 공장에서 한꺼번에 대량으로 만들어진 제품을 사용한다는 뜻이에요. 이런 제품은 구하기 쉽고 편리하지만 대신 모두 똑같아서 개성이 사라진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팝 아트 작가들의 작품은 현대의 소비문화를 찬미하는 동시에 비판한 것이라고 볼 수 있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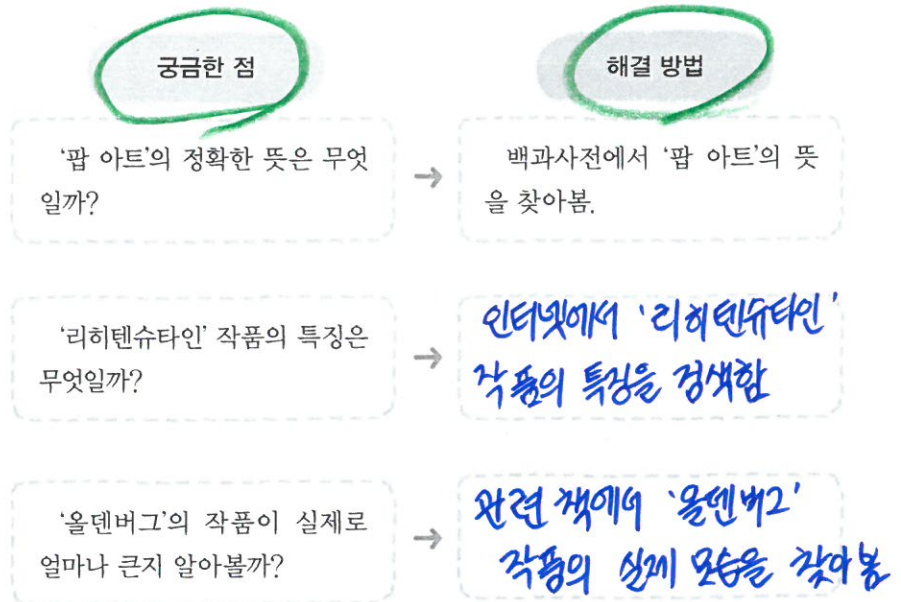
어쨌든 이러한 소재들은 무엇보다도 대중에게 익숙한 것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빛나고 선명한 색채, 분명한 선, 크게 확대되거나 반복되는 이미지, 기계로 찍어 낸 것 같은 질감 등이 나타나 있어서 어디에서나 알아볼 수 있고, 또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팝 아트 작가들이 대중에게 인기를 끈 것은 어렵지 않게 미술을 즐길 수 있는 기회를 통해 색다른 재미를 주었기 때문입니다.

팝 아트 작가들에게 미술은 소수의 사람이 즐기는 신성한 예술 활동이 아니었어요. 이들은 미술을 오락으로 취급하고 마치 상품처럼 제공하여 오히려 미술의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 전성수, 《창의력이 빵! 터지는 즐거운 미술 감상》

\* 책을 읽다 모르는 내용이 나오면 책 읽기를 포기하지 말고 민수처럼 백과사전, 인터넷 검색, 책을 통해 궁금한 점을 찾아 읽는 습관을 기르도록 한다. 😊

① 시진이가 글을 읽으면서 생긴 궁금한 점을 어떤 방법으로 해결했는지 정리해 보자.



② 글의 내용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을 질문으로 만들고, 관련 자료를 찾을 방법을 친구들과 이야기해 보자.

